"생활 속 물 절약 실천 동참해요"

순창군, 폭염·가뭄 선제 대응… 군민 참여 당부

순창군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여름철 강수량 부족으로 생활용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선제적 가뭄 대응에 나섰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가정과 일상생활에서 수돗물 사용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군은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돗물 공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물 절약 실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방법을 집중적으로 안내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물 절약 실천 방법은 △양치할 때 양치컵 사용하기 △샤워 시간 1분 줄이기 △변기 수조에 물을 채운 페트병 넣기 △설거지할 때 물을 받아 사용하기 △빨랫감을 모아 한꺼번에 세탁하기 등이다.

이와 함께 군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비상급수시설과 누수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가뭄 상황과 수돗물 공급 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수도시설 누수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순창군 상하수도과(063-650-1482, 063-650-5091)로 신고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안전한 수련공간으로 탈바꿈

대대적 시설 현대화 사업 완료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전경

임실군 청소년수련원이 제2생활관 신축과 제1생활관 리모델링을 포함한 대대적인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청소년과 단체 이용객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수련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군은 총 사업비 112억원(도비 57, 군비 49, 특별교부세 6)을 투입해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신규 숙박공간을 확충하는 등 수련원 전반의 시설 경쟁력을 높였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과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시설 안전성을 강화하고 전국 단위 청소년 수련활동과 기관·단체 연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지난 2024년 10월에 연면적 2,150㎡, 지상 3층 규모의 제2생활관을 준공해 29실, 87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규 숙박공간을 확보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기존 제1생활관에 대한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객실과 공용공간을 비롯해 화장실, 샤워실 등 노후 편의시설을 전면 개선해 이용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수련활동과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현대화에 따른 효과는 이용객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 총 42개 학교 및 기관·단체에서 9,720명이 수련원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년 수련활동뿐만 아니라 기관·단체 연수와 각종 교육·행사 등을 위한 시설이용 문의도 이어지면서 수련원의 활용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련원 이용객 증가가 임실의 주요 관광지 방문과 음식점·숙박업 소등 지역 상권 이용으로 이어지면서 체류형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수련활동과 기관·단체 연수 유치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설 개선을 통해 높아진 수련원의 경쟁력을 홍보하고, 전국 학교와 청소년 관련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용 수요를 적극 발굴해 방문객 유치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건축·소방·전기 등 시설물 전 분야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신속한 보수와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양충모 남원시장은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사업장 점검에 나섰다.

주요 사업장 점검·대책 논의

양충모 남원시장, 월락정수장·하수처리장 등 현장 방문

남원시에 따르면 양충모 남원시장은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사업장 점검에 나섰다.

양 시장은 18일, 월락정수장을 시작으로 인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산내 대정하수처리장, 만수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상황과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살피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민원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월락정수장에서는 상수도 공급체계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본 후 기후변화와 가뭄 등 급변하는 여건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급수체계 관리를 주문했다.

산내 대정 하수처리장에서는 최근 하수 유입량 증가로 발생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와 관련해 사고 원인과 후속조치, 재발방지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남원시는 현재 관리대행 직원을 상주시켜 시설을 관리하고 초과 유입량을 인월 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통해 시설 용량 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해 대정 하수처리장 초과 유입량 연계처리 상황과 여유용량을 점검하고, 여름철 하수 유입량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주문했다.

만수천 일원에서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상황을 확인하고, 불법 상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정비 기준과 행정절차를 충분히 안내해 주민 불편과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

양충모 시장은 "주요 현안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은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는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전북 최초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마무리

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운영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4개월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체납징수와 복지 연계를 통해 지방세입 확충과 적극행정의 성과를 거뒀다.

군은 지역 청년 2명을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배치하고, 전체 체납자의 약 88%를 차지하는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전화상담과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납부독려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체납자의 납부능력과 생활여건을 직접 확인해 자진납부와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압류·번호판 영치·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2026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총 1억 1,400만원을 징수하여 약 2천만원의 인건비 투입 대비 약 5배에 달하는 징수성과를 거뒀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명품가방·귀금속 등 동산 19점을 압류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도 추진했다.

이러한 성과로 2026년 상반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2위에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1,200만원을 확보했으며, 체납관리단 운영사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선도모델로 평가받아 타 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으로도 주목받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임도사업 평가 '간선임도 부문 1위'

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와 민간 전문평가위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2026년 임도사업 평가'에서 간선임도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순창군은 지난달 30일 실시된 평가에서 2025년 준공된 임도사업지를 대상으로 임도 노선의 적정성, 시공 품질, 구조물 안전성, 배수시설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동계면 현포리에 개설한 간선임도는 노면 안정성과 배수시설의 양호한 시공 상태, 구조물의 안전성,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우수한 식생피복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생산 과일 퓨레 태국 수출길 올라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국내 농산물을 활용해 생산한 과일 퓨레가 태국 수출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남원원예농협(조합장 김용현)이 운영하는 푸드종합가공센터에서 생산한 과일 퓨레 약 5.4톤, 3천만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수출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원물 중심의 농산물 판로를 가공식품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과일 퓨레는 음료와 디저트 등 다양한 식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어 향후 태국 현지 수요 확대에 따른 추가 수출도 기대되며, 남원시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가공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해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를 통해 농가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폭염 속 현장 근로자 '선풍기 조끼' 지급

임실군이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자원순환 업무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선풍기 조끼'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권역별 운전직 공무원·환경미화원 등 자원순환 업무 현장 근로자 33명이다.

지급된 선풍기 조끼는 내장된 냉각팬을 통해 외부 공기를 순환시켜 체온 상승을 억제하는 개인 보호장비로, 무더운 야외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체감온도를 낮춰 온열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열질환 예방수칙과 보호장비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폭염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